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민*원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Columbus
파견대학	The Ohio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AU 2015~ SP 2016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오하이오 주 Columbus 에 위치하며, Columbus 중심가 (시청 등) 와 약 20분거리에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음. 미국 대학 중에서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함. 전반적으로 백인 비율이 높고, 캠퍼스 내에 외국인 학생 수가 많다고 해도, 학교가 워낙 크다 보니 비율 적으로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음. 굉장히 오픈 마인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친절하고 서로 개개인을 도와주려 노력하는게 느껴짐.
수업	수업번호가 1 로 시작하는 전공기초 과목의 경우 다양한 학과 학생 150명 이상의 초대형 강의를 많다고 들음. 본인의 경우, public health 전공과목 3,4,5 로 시작하는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public health 전공 혹은 부전공 이였음. 이런 강의들도 학생 수가 많음. 50~60명. 모든 전공과목은 일반 강의를 주어져고, 해당 시간 동안 조별 혹은 개인별 토론시간 즉,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주어짐. 영어가 부족하건 어쨌건 자기 몫을 해내야 함. 혹 도움이 필요할 경우, TA 또는 교수와의 office hour 를 언제든지 신청하여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그룹별 활동도 굉장히 많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ESL 수업이 필수이나, 영어 실력이 증명되면 듣지 않아도 됨. 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Writing class 는 10명 남짓의 소규모임. 다양한 Language class가 있는데, 이 경우 일반 lecture를 선택 시 소규모임. Individualized track 을 고르면, 교수와 1:1 로 진행. 본인의 경우 중국어를 선택했었음.

프로그램 운영	<p>The Office of Student Life 의 Omolesky Caroline 이 담당자이며, 학교 도착 후, 학기 시작 전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음. 정말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3일에 걸쳐 알려줌. 수십 가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음. 교환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음. 있어도 1학기 짜리 교환학생들이 대부분임. 그래서 특별히 교환학생 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으나, 외국인 학생들이 빠른 적응을 위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기 내내 진행됨.</p> <p>학교에 tuition fee 를 제외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의 수준을 보면, 왜 그 많은 돈을 내는지 이해하게 될 것임.</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본래 겨울에 눈이 겹나게 오고, 엄청 추워야 하나, 2015년 겨울은 춥지 않았음. 12월 겨울 방학 1달동안은 펜실베니아 미국인 친구집에 있어서 잘 모르겠으나, 1월과 2월 학기 중에도 춥지 않았음.</p> <p>원래 여름도 습하고 더워야 한다고 하나, 2015년 여름은 덥고 건조했음.</p>
안전	<p>캠퍼스 내 총기사건이 머무는 동안 약 3번 발생함. 실제로 다치거나 한 사람은 없었으나, 경찰 및 학교로부터 이에 관련된 경고메시지 및 기숙사 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는 문자를 받았음.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음. 밤늦게 돌아 다닐 일이 있으면, 경찰이 제공하는 에스코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됨. 이 부분은 오리엔테이션에 가면 다 설명해줌. 절대 오리엔테이션을 빠지지 않기를 권장함. 굉장히 지겹지만 유익함.</p>
숙소	<p>전공수업이 주로 의대, 치대 등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medical building 들이 주로 있는 곳에 가까운 기숙사를 고름. Morrison tower 를 골랐음. 특별히 시간제한이나 사람제한 같은 것은 없음. 방을 함께 쓰는 룸메이트와 의 약속을 RA가 보는 앞에서 적어내고 이를 지키면 됨. International floor 인 4층에는 남녀 섞여 있음. 방은 같은 성끼리 씬. 다른 층은 남자층, 여자층 이렇게 구별 되어있으나, 굳이 분리되어있는 이유를 모르겠음.</p>

식사	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
	학교 Meal Plan 사용. 학내 3곳의 tradition 이 있음. 이 중 Scott 에 가면 왜 학식 비용이 비싼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임. 맛있음. Kenedy 도 나쁘지 않음.
교통	캠퍼스 내에 살아서 강 건너 있는 건물이 아닌 이상 버스를 이용하진 않았음. 캠퍼스 내에서 걸어서 수업을 갈 경우 최대 20분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생김. 학내 순환 버스 및 굉장히 많은 노선이 있으니 google map, OSU 앱을 사용하면 됨. 학교 에 내는 돈에 버스를 이용하는 비용도 들어감. 그래서 학내 순환 버스 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로 이루어진 Columbus 시를 돌아다니는 버스의 경우 학생카드 BUCKID를 사용하면 됨.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3000만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800,000원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이하 모두 1학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dent Activity Fee Graduate : \$37.50 • BUCK ID Account : \$100.00 • Non- resident Fee Undergrad : \$ 5.00 • Recreational Fee : \$123.00 • Student Union Facility Fee : \$74.00 •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tional Health Insurance Student: (본교 보험- 의무) \$1,187.00
숙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uth Housing Activity Fee : \$20.00 • 6days early Arrival- Columbus :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uth Campus Housing Rate 2 : \$ 3,405.00
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limited meal plan : \$ 1,850.00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TA Bus Service Fee : \$13.50
책값		약 \$130
기타1		
기타2		
기타3		
합계		USD \$ 6,960.90

5. 출국 전 준비사항

위의 금액에 관련하여, 총 2학기 동안 비자 신청 비용 포함 교환학생 경비로 약 한화 3000만원을 사용함. 1년간 남들 한국에서 학자금 4년치를 낸다고 생각하면 됨. 교환학생이니까 돈이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임. 또한 물가도 비싸서 생활비용으로 돈이 많이 들음. 돈을 많이 낸 만큼 학교가 작은 정부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최상급으로 갖추어져 있음.

출국 전 특별히 걱정하면서 준비 해 갈 것은 없음. 영어 회화 학원을 가네 마네 할 필요도 없음. 다급하면 다 누구나 말을 하게 되어있음. 가기 전 돌아와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가는 게 도움이 됨.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전공에 관한 지식도 많이 배웠으나, 크게 두 가지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음. 첫째, 인간관계 둘째, 함께 일하는 법. 나는 본교 학생이 아니고, 그냥 잠깐 머물고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1년간의 생활이 굉장히 시간 낭비 일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활동이라고 해도, 교환학생이라고 해서 지원자격을 박탈하거나 하지 않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지원해서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외국에 나가서, 굳이 또 한국인을 만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본인의 경우, 교환학생을 신청한 이유가 외국어 향상 및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 접하기 였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더라도, 현지 친구들에게서 받았다. 굳이 한인학생회에 가입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한국어를 사용할 일 이 없어서 영어를 빨리 향상 시킬 수 있다.

본인의 경우, 가기 전 돌아온 후의 계획을 세워놓고 가서, 돌아와서 빠르게 졸업 준비를 하고 있다. 졸업논문 및 3차, 4차 기술 자격증 시험 , 7,8 월 인턴을 준비 중이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거기서 어떠한 마음으로 적응하고 생활 하는 지 이다. 솔직히 말해서, 가기 전에 다녀온 사람의 의견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금전적인 부분만 참고하였으면 한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ECP group 42 모임. 캠퍼스 내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 탄 날.</p>	<p>본인이 함께 일했던 CARE Ambassador 들</p>
	
<p>CARE Ambassador 로서 처음 성사시킨 문화행사- The Lantern Festival</p>	<p>Block O Area 기숙사 CARE Ambassador 와 그 동안의 성과 발표하는 모습</p>
	
<p>미국에서의 BEST Friend 와 귀국 전 마지막 인사</p>	<p>기숙사친구들 과 가을 방학 Atlanta 여행 중</p>